

## 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5.2.20.(목) 오후 2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구종상 위원장, 최은수 부위원장, 김광석, 전계순, 김병수

안서연, 백명희, 박세진, 임태순 위원 9인(이경화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부장, 시청자센터 부장

### ■ 주요 내용

#### ▲ 구종상 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2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자리에 배치되고 앉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사 답변후 다음 위원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부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 최은수 부위원장

- 저는 YTN하고 연합뉴스TV 보도의 편향성(bias)과 객관성(objectivity) 측면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YTN보다 조금 더 절제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려는 측면이 돋보였습니다. 사건의 사실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감정적 어조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여야 입장을 모두 포함하여 양측의 관점을 다루려는 시도가 돋보입니다. 앵커의 절제된 중재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의 발언을 인용하여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 그럼에도 일부 기사에는 뉴스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여 "특검 중독증" 기사의 경우, 기사 전체적인 흐름이 야당의 주장을 먼저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부분이 초반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양측의 입장 균형이 완전히 맞춰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객관성 측면에서는 발언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 기자 개인의 의견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뚜렷한 근거나 검증 없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단정 짓는 듯한 서술이 있어 객관성을 다소 해칠 수 있습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라는 문구는 확인된 사실보다는 추측에 가까워, 뉴스 보도의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화면 구성 및 CG/자막, 자막이나 CG가 과도하게 특정 프레임(예: '게이트', '비상계엄', 보수궤멸 시나리오)을 강조하는 것처럼 자주 등장해 오해 가능성. 전반적으로 발언 인용 및 기본적인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으며, 화면 구성과 앵커 진행 방식이 균형적. 시청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하더라도 정치 뉴스가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측면에서라도 뭔가 회사에서 조금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 신지홍 보도본부장

- 보도본부장 신지홍입니다. 새로 출범하신 시청자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첫 회의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답변에 나섰습니다. 최은수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명태균 특검법 야당 관련 기사에서 편향성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날 일련의 기사 흐름을 보면은 이 기사와 상대가 되는 권성동 원내대표 기사가 나란히 배치돼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단건의 기사만 보면은 야당의 주장에 다소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관련 기사까지 같이 놓고 보면 그날 뉴스가 전체적으로 조화롭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시청자들 입장을 고려해 기사 한 건 한 건이 중립적이고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 이라는 문구는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정치상황이라면 이 정도 표현은 쓸 수 있다는 게 부서장의 판단이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아직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어떻게 균형을 잡고 갈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 지금 기사가 너무 과도하게 정치 기사가 많다는 말씀은 뼈 아프게 제가 좀 받아들이겠는데요. 저희가 거의 두 달 가까이 뉴스특보 체제를 운영을 하면서 좀 다른 인력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그 보도국 기자가 한 90에서 10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YTN에 비하면 사실은 한 3분의 2 정도 인력밖에 안 돼요. 저희가 예를 들면 시청자들이 저희 채널을 틀었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뉴스가 아마도 정치와 최근에 관련된 탄핵 관련 뉴스일 텐데 우리가 그 뉴스를 안 틀고 있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만 일주일 전부터 저희가 조금 편성 변화를 줬습니다. 문화, 경제, 스포츠 기사를 지금 점진적으로 많이 배치하고 있고 그동안 빼냈던 다큐나 기획기사 그리고 스페셜, '뉴스프리즘' 같은 프로그램과 '인사이드'라는 인터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난주부터 다시 방영을 시작해서 지금 서서히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후로는 아마 조금 더 채널이 다채로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균형 있게 잘 잡아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각 부서에서 만든 콘텐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구종상 위원장

이경화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 이경화 위원(서면 제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모니터링 및 이용 교육 활동을 해오면서 무분별하게 생성되는 미디어, 숏츠와 같은 짧은 영상으로 말초적 자극에 의존하는 미디어, 광고와 정보를 혼재시켜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미디어 등 각종 형태의 유해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현실에서 그나마 연합뉴스TV 채널은 신뢰와 사실을 전달하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음. 연합뉴스TV 채널의 신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함.

- 인터넷 등장 이후 매년 변화하는 기술 환경은 이용자들을 늘 긴장하게 만들. 최근 알고리즘이 보편화되어 이 기능의 오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편향적 사고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음. 홈페이지 초기화면 메뉴는 정치, 문화, 예술, 최신 등으로 구분해 두어

이용자가 새로운 기사를 선택적으로 접속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이미 익숙한 기사로 도배하고 있었음. 연합뉴스TV 홈페이지 관리자는 정보 편향성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메커니즘을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함.

- 뉴스 프로그램 이름 및 편성에 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자 함. 모든 프로그램에 뉴스 1번지, 뉴스 잇, 뉴스포커스 등 이름으로는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중점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 이 점은 프로그램 이름이 시청 욕구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과 시청자 각자가 가진 다양한 관심 영역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자세라고 보임.

- 일본의 NHK는 뉴스 보면서 일본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음.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글로벌 시대를 고려한다면 뉴스 프로그램 제작에 이를 반영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봄.

- 침묵하는 아동·청소년시청자의 권익 보호도 필요한 시점임. 뉴스 취재는 충분한 설명 없이 쉽게 외부로 쏟아내는 어른의 태도로 불안감을 갖는 아동·청소년의 입장도 보호임. 예로, 초등 3년생의 계엄령, 탄핵을 교과로부터 들었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행위는 교실의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게 함. 교사의 이러한 행위는 미국 교육현장에서 고발당할 수 있는 일임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연령 구분 없이 시청자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는 연합뉴스TV 채널은 보도채널의 강점을 적극 살려 취재에 임해주길 바람.

#### ▲ 신지홍 보도본부장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홈페이지 기사 배치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디지털 쪽 온라인과 유튜브 이런 쪽을 다루는 파트가 있습니다. 디지털 센터라고 하는데요. 계속 하루 종일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기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편집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다음이나 포털 같은 데 이런 데 계속 어떻게 보면은 특정 알고리즘으로 자극적인 게 계속 노출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품격 있는 보도 채널을 지향하기 때문에 연예 매체라든지 스포츠 매체처럼 그렇게 자극적인 편집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 뉴스 프로그램의 이름이 프로그램 이름만 봐가지고는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뉴스포커스, 뉴스잇 하면은 시청자들이 이게 어떤 종류의 뉴스를 다루는 프로그램인지 코너인지 좀 알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개편을 할 때 프로그램명을 한 번 바꾸는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잘 살펴 보겠습니다.

- 한국 내 거주 외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이 한국어 습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쉽게 익히도록 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KBS '우리말 겨루기' 등 공중파의 교양 프로그램같은 프로를 특보 편성이 잦은 보도채널에서 편성하기는 여건상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보도채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아동 청소년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취재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뉴스스페셜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대선 국면까지는 아마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코너의 의미나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대선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다룰 수 있는 다큐 형태의 제작물들을 좀 만들어서 보도하

도록 하겠습니다.

#### ▲ 김광석 위원

- [정신채린! 삶의현장] "특공! 미용을 명 받았습니다!"...고양이 털 미는 전직 군인?!, <정신채린! 삶의 현장> 프로그램에서 안채린 기자가 특공대 출신의 전직 군인이 동물미용사로 운영중인 업체에 찾아가서 현장체험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내용 중 안 기자의 멘트와 자막의 표기가 부적절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 기자의 멘트와 자막에는 바리깡이라고 표현하였는데, 표준어는 바리깡이며, 바리깡이 올바른 표기라고는 하지만, 바리깡은 '일본어 투'에 해당되는 단어이기에 기자가 일본어투보다는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다면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과거부터 일본어 투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합뉴스TV 구성원들도 리포트 또는 자막 표기시에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현장잇슈] 저마다의 손길로 나눠 가진 슬픔...무안 공항은 출지 않았습니다. 신선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은 무안 공항 사고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님들에게 3,000명 넘는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들이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는 보도내용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는 보도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연합뉴스TV 스페셜] 362회 : '청년 퇴사' 그들이 사표 내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미래 주인공인 청년들이 직장에서 조기 퇴사하는 이유에 대해 기성세대가 보는 시각과 MZ세대들이 생각하는 차이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유에 대해 그들의 입장을 분석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직장관과 기성세대와의 차이를 시청자들 중 부모 및 기성세대에게 MZ세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퇴사가 이전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정신채린 삶의현장은 저희 유튜브에서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의 한 코너입니다. 보통 삶의현장에서 화제가 될 만한 이야기거리들 그리고 인물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주로 소개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저도 좀 재미있게 잘 봤는데요 '바리깡' 단어 저도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봤습니다. 군대 있을 때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바리깡이 아니고 바리깡이라는 건 저도 처음 알았고요. 흔히 바리깡이라는 게 사용되고 있나 생각은 드는데요 그 단어 자체 국어를 순화해야 한다는 거는 저희가 방송의 전면에 선두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거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부주의한 것이 없도록 우리말 순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정신채린 삶의현장은 TV물은 아니고 유튜브 코너여서 조금 자연스럽게 자막을 다는 그런 건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현장잇슈도 역시 유튜브 채널 코너입니다. 현장잇슈가 아주 저희 대표적인 유튜브 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잘 만들면 100만 뷰 넘게 나오고 이런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신선재 기자가 현장에 강한 기자입니다. 현장에서 재미있게 만들어서 감동도 주고 또 위로도 주고 콘텐츠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년 퇴사는 제가 다시 봤는데 일단은 비교적 완성도 높게 재미있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어떤 사회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이런 게 그런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지 못했다는 느낌은 좀 들

던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요즘 젊은 MZ세대들이 직장보다는 직업을 우선시하고 퇴사한 뒤에도 그걸 퇴사를 좌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공직사회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매력적인 직장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100점짜리 콘텐츠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의 있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한 20분 가까이 되는 긴 스페셜을 다 봐주셔서가지고 감사드립니다.

#### ▲ 전계순 위원

먹거리 물가 잡기 나선 정부...식품업계에 "물가 안정 동참" <2.11>, 본 방송은 최근 물가 이슈에 시의적절하게 보도되었으며,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에 의한 폭염 발생 등 여러가지 불안한 세계정세로 인하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비 가격은 널뛰기 하고 있다. 고환율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예측 불가능하게 흐르고 있는 시점에서 본 보도는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물가당국의 물가 인상 자제 요청 분위기로 눈치를 보던 식품업체들도 연초부터 줄줄이 식음료 가격 인상에 나섰다. 고환율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2주간 빵, 과자, 커피 등 먹거리 가격 인상 움직임이 계속되자 17개 주요 식품업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국 불안 속에 정부의 물가관리가 느슨해 지면서 기업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빨라지고 소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이다. 장바구니 물가는 외식비 등 다른 품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정부당국의 관리가 더 강화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요구된다. 소비자단체 물가감시센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물가조사원들이 생활필수품가격조사를 오프라인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별물가 조사 등 물가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그동안 물가 이슈와 관련하여 원가 분석 등을 기반으로 업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기업들에게 제품 가격 인상 자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해왔다. 향후 정부의 기업에 대한 여러 지원책 등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의 지나친 가격 인상 여부는 상시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 단체와 연계하여 장바구니 물가조사 결과를 정례적으로 보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 전체적으로 앵커와 보도 기자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달 능력과 자료화면의 적절함이 돋보였습니다.

#### ▲ 신지홍 보도본부장

정부에서 나오는 발표 외에도 실제로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을 또 전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현장을 많이 나가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겠고 또 시민단체나 소비자 단체들이 내는 그런 정부 자료보다도 더 생생한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 하겠습니다. 지금 고물가 때문에 다들 고생하고 있으니깐요. 그런 이슈를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해 주셨으니까 경제부장한테 생활 물가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취재해서 조사 보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김병수 위원

- 연합뉴스TV 스페셜 359회, '빛'나야할 청춘 '빛'으로 명들다, 지금 20-30대의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학자금 상환, 생계비 등으로 빛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다룬 프로그램으로서 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중에서도 2030의 대출이유가 전세 월세자금 등 임차비용 위한 대출(53%) > 생활비 등 급전 마련을 위한 대출(20%) > 주택담보대출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18%) > 대학등록금 등 학자금 대출(7%) > 교육, 훈련, 자기개발을 위한 대출(1%) 순으로 나타남. 하지만 첫 번째 사례자로 나온 20대의 부동산 투자가의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로 빛을 지고 있다는 사례는 2030의 주요 대출사유(전월세 임차비용, 생활비 충당, 학자금대출 등)와의 괴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연합뉴스TV 스페셜 360회, '트럼프 2.0시대' 탄핵정국 속 우리의 전략은?, 트럼프의 재선으로 세계 각국이 예고된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전쟁의 개시로 세계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 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가운데 연합뉴스TV 스페셜 360회는 매우 시기적절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트럼프의 고율의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전쟁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별로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피해와 대응전략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연합뉴스TV 스페셜 362회 : '청년 퇴사' 그들이 사표를 내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이 직장 보다는 직업의 개념이 우선시되고 있는 사회에서 높은 이직율을 보이는 청년 퇴사가 이상하지 않은 사회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퇴사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는 기획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프로그램 중 청년 퇴사의 이유와 프로그램에서 다룬 사례자들의 케이스가 좀 매칭이 안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 신지홍 보도본부장

- 말씀해 주신 사례자로 나온 20대 청년 그분은 보니까 직업적인 투자자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해당 부서의 이야기는 이 분이 전반적으로 젊은 층들이 빛을 많이 지는 중에 하나가 주거 관련 비용 때문에 이제 빛을 많이 진다는 것인데 이 분 역시 자기 집도 다 돈을 빌려가지고 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에 해당이 돼서 이 분을 선정했다는 거고 또 이 분이 왜 이제 10억이 나오니까 빛을 지고 있던데 이 분의 그 액수가 이제 크고 하니까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 프로그램 제작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면서 눈길을 끄는 적절한 사례라고 아마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지적을 듣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부분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전혀 사례와 어긋난 이 주제와 어긋나는 그런 케이스는 또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조금 축소시켰으면 더 좋았을 뻔했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 트럼프 2.0시대' 탄핵정국 속 우리의 전략은, 해당부서 이야기로는 저희가 조만간 트럼프 2기 정책과 관련된 주제로 경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데 그때 한번 제작을 추가로 계획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번에 지적해 주신 거 반영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 청년재단이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이렇게 쪽 나왔는데 요,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들도 여러 개 저희가 제시를 했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사

레들도 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반드시 낮은 성장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를 그만두는 게 자기도 일종의 좌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2의 자기의 어떤 성장을 위한 그런 걸로도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부분을 조금 넣어가지고 기사를 좀 더 콘텐츠를 입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꿈을 위해 퇴사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안서연 위원

여교사 초등생 살해 관련하여 신속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이며, 대전교육청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에 계신 기사를 연결하여 현장감 있게 보도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는 반면 피의자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00사건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이후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 성명으로 보도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근본적인 대책 등 심도있는 취재를 기대합니다.

#### ▲ 신지홍 보도본부장

여교사 초등생 살해 사건 자체는 저희 연합뉴스TV가 첫 1보를 했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보도를 해서 이 사안을 처음부터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던 사안입니다. 피해자 하늘이 아이 이름은 저희가 또 마지막까지 이름을 안 썼던 매체입니다.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최대한 이름을 공개하지 말자 그래서 타사보다도 거의 하루 정도 늦게 저희가 이름을 썼는데 이름을 쓰게 된 이유는 아이의 아버지가 꼭 아이 이름을 밝혀달라 그리고 아이 이름으로 명명된 법이 제정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셔서 저희가 다시 회의를 열고 이름을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다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거쳐서 피의자 이름 공개가 되면은 당연히 저희들은 이름을 쓸 테고 아까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의자 중심으로 당연히 그 사건이 명명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 백명희 위원

의료공백 실태를 현장 시리즈물로 취재 기획해서 해법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제작물 필요, '의대 증원' 갈등이 꼭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만 2천여 명의 전공의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의대생들 역시 휴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뿐만 아니라 의대 대학생, 수능을 준비하는 입시 고등학생도 지금 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 환자, 학계, 정부 등 전문가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인터뷰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해서 의료공백실태를 현장 시리즈물로 취재, 기획해서 해법을 같이 고민하고 모색하는 제작프로그램 또는리포트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공영방송인 연합뉴스TV가 보도한다면 시청자들이 더욱 더 연합뉴스TV의 역할에 신뢰감이 높아지기에 제안합니다.

#### ▲ 신지홍 보도본부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대증원 갈등 1년이 된 시점이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계엄 관련 현재 판결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스페셜이나 프리즘을 통해서 한 꼭지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 박세진 위원

-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변론 및 국회 청문회와 관련한 연합뉴스TV의 보도는 법정에서 나온 주요 발언의 의미와 파장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며,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분석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월4일 뉴스특보에서는 변호사 두 명을 초청해 법적 절차 측면에서 탄핵 심판의 진행 과정과 핵심 쟁점을 짚어보았고, 2월 10일 방송된 뉴스1번지와 뉴스투나잇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초청해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2월 6일 뉴스특보와 9일 뉴스1번지에서는 시사평론가들이 출연해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해설하는 등 다양한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균형있게 전달하며 다각도로 현안을 짚어 봤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련의 보도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변론 및 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증인으로 등장했던 군인들의 입장에 대한 조명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보도가 정치인이나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다루졌는데, 정작 군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군의 관련 법규상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보도에서는 군사안보 전문가나 군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증인들의 행동과 진술을 분석하고, 법적·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짚어보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 분야의 보도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편이라고 평가됩니다. 보도전문 채널의 특성과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가수 송대관 씨의 사망 소식과 같은 시의성 있는 이슈를 제외한 문화·예술 관련 보도를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4일 보도에서 도난·약탈·거래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로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이 24만여 점에 달한다는 소식을 전한 점과, 2월 6일 보도에서 신라 태자가 머물던 실제 동궁 위치가 새롭게 밝혀졌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유물이 함께 발굴되었다는 내용을 다룬 점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지상파 채널에서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연합뉴스TV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도전문 채널로서 단순한 사건 중심의 보도를 넘어 문화·예술 분야의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보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유산 관련 보도뿐만 아니라, 예술·전통·문화 정책과 같은 보다 폭넓은 문화 보도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연합뉴스TV가 더욱 균형 잡힌 뉴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서 군인들의 선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게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군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섭외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워낙 민감한 시기에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신문이나 페이퍼를 다 하는 매체라면은 익명으로도 코멘트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기사를 쓸 수 있지만 방송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TV에 나오는 거 꺼리셔서 좀 섭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잘 참고해서 적절한 시기에 담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문화 예술 관련 보도는 확실히 이제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채널이 다양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로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저로서도 좀 아쉽습니다. 조만간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 ▲ 임태순 위원

보호출산제 200일... 위기 임산부 107명 상담 후 원가정 양육 선택(2.3.), 이번 뉴스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에 관한 자막(스크롤)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2024년 7월부터 보호출산제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다뤘었는데, 당시 보도를 통해 이 제도의 취지와 문제점을 상세히 조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서는 제도 시행 200일이 지난 시점에서 간략한 자막 뉴스만 제공해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제도 시행 200일이 지난 지금, 보호출산제가 실제로 어떻게 자리를 잡았으며, 시행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가 있었다면, 시청자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정보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공영성을 갖춘 연합뉴스TV가 위와 같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심도 있는 보도를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 ▲ 신지홍 보도본부장

스크롤까지 내보내고 기사를 제대로 못 다룬 거 보면은 아마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보호 출산제라는 걸 저도 이번에 의견주셔서 좀 찾아봤습니다. 저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잘 몰랐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로도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저희가 관련된 경험있는 보호 출산자의 혜택 제도를 이용했던 사람들을 한번 만나서 관련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뤄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 구종상 위원장

- 연합뉴스TV는 디지털뉴스, 유튜브 등 온라인 뉴스 유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다른 지상파와 경쟁사와 비교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자료에 의하면 연합뉴스TV는 2015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구독자는 181만 명, 누적 조회수는 28억 뷰 이상입니다. 이는 2년 먼저인 2013년 개설한 경쟁사와 비교해 구독자 수와 누적 조회수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흥미롭고 차별화된 다양한 시도와 콘텐츠를 만들어 서비스 해야 합니다. 아울러 디지털뉴스 분야를 비롯 내부 조직 시스템에 있어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한 대부분 프리랜스 신분인 젊은 앵커가 신선한 이미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 방송국에 검직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뢰성과 책임성 및 전문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앵커의 처우개선을 비롯 이미지가 좋고 방송 역량이 뛰어난 기자들을 잘 찾아내서 앵커로 키워가는 것도 좋은 전략적 방안이라 봅니다.

####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저희가 창사 이래 YTN하고 쪽 경쟁을 해오면서 시청률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해왔고 최근 3년 정도 저희가 YTN을 거의 압도적으로 시청률에서 이겼습니다. 시청률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성과를 이뤄냈는데 유튜브나 이런 디지털 쪽 분야에서 사실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뒤지고 있어요. YTN은 이런저런 채널을 합치면은 유튜브나 포털 합치면 저희 몇 배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어서 저희도 제가 보도국장 되기 2년 반 전부터 우리가 유튜브랑 디지털 쪽을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사실은 2015년에 유튜브 채널이 개설됐지만 시작된 거는 본격적으로 된 건 한 2년 반 정도입니다. 안수훈 사장이 이번에 취임하면서 디지털 퍼스트라는 전략을 내세워서 앞으로 3년간 저희가 디지털 퍼스트로 해서 아마 이 TV 일반 레거시 미디어 외에도 디지털 쪽으로 강화해서 YTN을 조기에 따라잡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아마 3월 중에 온라인 뉴스팀이라는 팀을 새로 7명 구성으로 해서 신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파트에 뛰어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주시면서 격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앵커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자들은 아나운서가 거의 대부분이고 기자 출신은 지금 두 명입니다. 저희는 아나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들이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나운서 중에 이제 정규직인 사람은 한두 명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 다 프리랜서인데요. 보도채널 성격상도 있고 저희 회사 정책이 아나운서들은 프리랜서로 그동안 쪽 해온 걸로 창사 일을 해왔고요. 이 부분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회사 내부의 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이제 받게 됐으니까요. 임원들하고 또 토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기자들이 직접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내 오디션 진행을 해서 구하림 기자라고 '뉴스잇' 저녁 5시 반부터 하는 뉴스가 있는데 오디션을 통해가지고 뽑아서 한 지금 1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올 가을 정도 만약에 이제 진행자 교체가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은 오디션을 통해가지고 사내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자를 뽑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량 있는 앵커를 키워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구종상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